

광주지역 땅값 상승 '광산구·동구' 주도

개발호재·재개발 따른 상승 효과 특출

전남지역 장성·화순 지가 상승 견인

광주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개발호재 및 재개발에 따른 상승 효과를 특출히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은 장성과 화순에서 광역도로 사업 확정과 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27일 국토교통부의 '2019년 연간 전

국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동향'에 따르면 광주 땅값은 평균 4.77% 올라 서울(5.29%)·세종(4.95%)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 땅값 상승은 광산구와 동구지역이 견인자 역할을 했다.

광산구는 빛그린산단지역 내 개발호재와 신가동 주택 재개발 신호, 평동 3차

단지 사업 진행 등이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동구 역시, 용산지구 개발사업 시행 및 재개발구역 진행에 따른 지가 상승이 땅값 오름세를 견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땅값 상승률은 3.9%로 분석됐다. 특히, 장성과 화순의 지가 상승이 뚜렷했다. 장성은 주변에 인접한 광산구 첨단3지구 연구교육단지 사업 진척과 광주-장성 광역도로 사업 확정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가 지가 상승 원인으로 파악된다.

화순에선 도곡온천단지 재생사업 추진과 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 주변의 지가가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지가 상승에 비해 광주·전남의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보다 소폭 하락했다.

광주지역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거래량은 6만 3,393필지로 전년(7만 9,951필지) 대비 20.7% 감소했고 전남은 17만 9,971필지로 전년(18만 7,679필지)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가 1

만 625필지로 전년(1만 2,330필지) 대비 13.8% 감소했고 전남은 12만 3,201필지로 전년(12만 7,128필지) 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전국 지가는 3.92% 상승했고, 땅값 상승률은 전년(4.58%) 대비 0.66%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5.14%에서 4.74%로, 지방은 3.65%에서 2.51%로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토지 시장도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광민 기자

종량제 도입후 국산 수제맥주 '헝겊'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 3배 증가

52년 만에 종량제 도입을 골자로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산 수제맥주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이달 1~26일 국산 수제맥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 이상(221.8%)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제맥주 매출 상승에 힘입어 국산 맥주 매출도 28.2% 증가했다. 지난해 국산 맥주 매출 신장률은 평균 5.3% 수준이었다.

세븐일레븐은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외국 맥주 수요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달 들어 국산 수제맥주 6종을 대상으로 3권에 9,900원 할인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수제맥주 자체의 영향력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세븐일레븐 국산 맥주 부문에서 수제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5%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5%까지 올랐고, 올해는 9.0%까지 치솟은 상태다.

또 2017년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의 판매량을 앞질렀지만, 올해 1월 현재 국산 대 수입 맥주 매출 비중은 52.5%대 47.5%로 다시 국산이 승기를 잡은 상태다.

세븐일레븐은 다음 달 수제맥주 5종을 대상으로 4권에 1만원 행사를 진행한다.



시원한 안마 받으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가구매장에서 목과 어깨, 골반, 엉덩이까지 다양하게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안마의자를 전시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한전, 세종시 전기버스 충전소 구축

한국전력(사장 김중갑)은 최근 친환경 경차 도입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에 전기버스 전용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

한전은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BRT(간선급행버스) 차고지에 전기버스 전용 충전기 4기를 구축하고,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전기버스를 운행하게 된다.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다.

한전은 구축한 충전인프라는 200kW급 전용충전기 4기며,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56kWh급 배터리를 갖춘 84인승 2단 굴절버스 4대를 운행한다.

이번에 구축된 전기버스 충전기는 광주광역시, 나주시에 이어 세 번째 설치된 시설로, 한전은 향후 충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버스 전용 충전인프라는 대중교통수단인 전기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 전기차 충전기보다 높은 수준의

한전은 전국 8,000기가 넘는 전기차 충전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 전기버스 운영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버스용 충전인프라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한전이 우선 투자를 통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고려인삼, 사상 첫 수출 2억 달러 돌파

홍삼조제품·음료 등 22% 증가...중국·베트남 급증

지난해 인삼 수출이 사상 최초로 2억 달러를 넘어섰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인삼류 수출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2억 1,114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와 aT는 지난해 인삼 수출 2억 달러 달성을 위해 판촉행사와 박람회, 소비자체험, 바이어상담회 등 해외 활동뿐만 아니라 수출상품화, 해외인증등록 등 국내에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쳤다.

수출업체도 인삼수출협의회를 통한

공동마케팅을 강화하고, 국가별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류를 개발해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다.

이 같은 결과로 홍삼정, 홍삼조제품, 인삼음료 등 제품류가 22%나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수출시장에서 홍삼·수삼·백삼 등 뿌리삼 수출은 식품보다는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제품류의 소비 증가는 식품으로써 소비가 확대되고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

이 각각 7,108만 달러(37.0% ↑), 2,143만 달러(39.8% ↑)로 급증했다.

aT 관계자는 "홍콩 시위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홍콩, 대만, 미국 등 전통적으로 인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다소 주춤했으나 생산자와 수출업체, 정부와 aT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 베트남에서는 수출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어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강기능성 식품인 인삼의 수출확대는 향후 다른 품목의 해외 수출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함께 인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



중기부, 법령 위반 8개사 행정처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8개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2개사는 시정명령과 경고를 모두 받았고, 4개사는 시정명령, 2개사는 경고를 각각 받았다.

이 중 1개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주된 위반 유형은 주요 주주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 합의 등이다.

중기부는 2년마다 창업투자사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오고 있다.

창업투자사들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용은 2년간 온라인에公示된다.

'헝겊' 누적 매출 3조원 돌파

즉석밥 '헝겊'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누적 매출 3조원, 누적 판매량 30억개를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3년간 팔린 헝겊을 나란히 놓으면 지구를 10바퀴가량 돌릴 수 있다"며 "그동안 사용한 쌀의 총량은 400만 가마니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1996년 12월 출시된 헝겊은 매해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5% 성장한 4,86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4억 5,500만개가 팔려나갔다. 이는 국민 1명당 한 해에 헝겊을 9개씩 먹은 꼴이다.

헝겊은 올해 5,000억원대의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헝겊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닐슨 코리아 기준으로 71%에 달했다.

삼성SDS, 브랜드 가치 평가 11위

삼성SDS는 영국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업체 '브랜드파이낸스'가 실시한 IT서비스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작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1위는 글로벌 IT 컨설팅 그룹 액센추어, 2위는 IBM이었다.

브랜드파이낸스는 삼성SDS의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7% 상승한 37억달러(4조 3,000억원)를 기록해 25대 글로벌 IT서비스 기업 중 순위가 상승한 2개 기업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브랜드파이낸스는 삼성SDS의 브랜드 가치 성장 비결로 IT서비스 시장의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률, AI·IoT·블록체인, 5G, 클라우드 등 첨단 IT 기술 기반의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적 투자·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을 꼽았다.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 용도 ...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일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080-362-7788
www.dreamkorea.biz